

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다

핵심 구절: “그러므로 내가 네게 상기시켜 주노니,
내 안수함으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
불태우라.”

디모데후서 1:6

선정된 성경 구절:

디모데후서 1:1-14; 3:14,15

사도 바울에게는 친자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, 디모데를 “믿음 안에서 내 친아들”이라고 다정하게 부른 것은 그의 깊은 애정을 보여줍니다. (디모데전서 1:2) 그는 모든 신자들을 자신의 영적 자녀로 여겼으며, 오랫동안 그 곁에서 충성스럽게 섬겨 온 디모데에 대해서는 특히 그 감정이 강했습니다.

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, 특히 진리를 갓 믿기 시작한 이들에게 주는 건전한 조언입니다. 이 말씀은 자신의 삶을 주님과 그분의 사역에 전념하고, 각자의 재능과 기회에 따라 주님의

사역자나 종으로서 유익하게 쓰임받기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.

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무렵, 디모데에게 전한 것입니다. 디모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, 사도와 함께 수년 동안 수고해 온, 아마도 40세 전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.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,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으며, 그곳에서 그의 이름을 딴 서신들을 받았습니다.

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상기시키며 자신을 소개합니다.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음으로써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. 그 후,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약속의 조건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. 사도행전 9:3-20; 22:14,15

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맑다는 점, 디모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점, 그리고 에베소에서 헤어진 후 다시 그를 만나고 싶은 소망을 언급합니다. (디모데후서 1:3, 4) 두드러진 지위에 따르는 위험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겸손하고 신실하며 성경에 굳게 뿌리내리도록

격려했습니다. (디모데후서 1:13)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굳건히 서야 했습니다.

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진실한 믿음과 경건함을 상기시키며, 이러한 유산이 그의 마음에 견고한 기초를 놓았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. (디모데후서 1:5)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도 경건한 부모가 자녀에게 인격의 기초를 마련해 주면, 그 위에 유익한 삶을 세울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신명기 6:6,7; 잠언 22:6; 에베소서 6:4

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안에 있는 “하나님의 은사”를 “불태우라”고, 즉 새로운 힘으로 다시 불을 지피라고 격려했습니다. 또한 그는 디모데에게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라고 경고하며,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“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의 영”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. (디모데후서 1:6, 7) 이러한 영은 용기와,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 어린 헌신, 그리고 열정을 발휘할 때의 현명한 판단력을 낳습니다.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영을 점점 더 얻어, 주님을 섬기는 일에 두려움 없이 지혜롭게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.

디모데후서 3:14, 15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, 이 가르침이 구약의 “거룩한 성경”과 예수님 및 영감을 받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전해졌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.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용기를 얻었듯이, 우리도 이 사랑하는 사도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읍시다.